

화엄사 전강원 입재식 봉행



1월 12일 열린 화엄학당 각성 스님 전강원 입재식.

화엄사(회주 각성)는 1월 12일 오후 3시 '화엄학당 각성 스님 전강원' 입재식을 봉행했다. 전강원은 회주 각성 스님을 전강법사로 해 <능엄경> <유식삼십승>을 주교재로, 서울 옥수동복지관에서 월 1회 강독하고, 2010년 1월 12일 회향식을 갖는다. 참가자격은 법랍 20년 이상의 강사스님으로,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해야 전강 받을 수 있다. 입재식에서 각성 스님은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또 해도 새롭고 기쁜 것"이라며 "1~2년 간 이어질 긴 여정인 만큼 인내를 갖고 모두가 회향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절에서 6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통도사 ‘어린이 한문·예절교실’서 배운 예절 실생활 적용도 ‘최고’

“서예는 뭐라고 했죠? (차남일, 서예 강사) “절과 선의 예술이예요! (김경모, 중남초5) 중학교 미술시간에나 나올법한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이곳은 교실이 아닌 법당, 교과서가 필요 없는 실습을 통해, 화선지에 마음을 담아내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의 배움의 열기로 뜨겁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 템플스테이 전유관에서 1월 12~17일 ‘어린이 한문·예절교실’이 5박6일 일정으로 열렸다. 1차 1월 5~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양산, 울산 및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초등학교 3~6학년 남녀 어린이 33명이 참가했다.

5박6일의 모든 일정은 낭만방식 및 법당, 세면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템플스테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템플스테이 전유관에서 이뤄졌다.

첫째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5박6일간 함께할 도반들과 인사한 뒤 수학복으로 갈아입고, 다소 생소한 사찰 예절과 처음 만났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예불, 108배, 참선, 발우공양, 도량 윤력, 한문·예절·서예 교실, 전통문화 체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절 교육의 경우, 혼례와 상례, 제례와 차례 등에 맞는 절하는 방법과 박물관이나 전시관, 음악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집안에서 정리정돈하고 청소, 식사하는 예절법,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등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템플스테이 생활지도를 맡은 연수과장 해법 스님은 “기존의 1박2일 템플스테이는 가벼운 사찰문화 체험 정도에 그쳤다면, 5박6일은 절에서 배운 예절들이 몸에 배기게 충분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에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 전원이 실제 어린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강사들로 구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 교육효과가 더 높았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기자



통도사 ‘어린이 한문·예절 교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1월 12~17일 열린 템플스테이에서 진행된 한문교실(위)과 서예교실(아래)의 모습.

“불교·문화 접목 실행으로 불법 실천”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영축사 회주·해운대불교회관 부산포교원장 각문 스님

“부처님 인연법으로 절에서 살고 자랐으니, 이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회향해야지요. 하루 빨리 더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어서 도심으로 왔습니다.”

울주 영축사 회주 각문 스님(사진)이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을 열고 부산 불자들을 찾아왔다. 스님을 법사로 한 날도 울주와 부산을 오가며 해운대불교회관 개원식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앞으로 산세가 영험한 울주 영축사는 기도 수행도량이, 부산포교원은 마음공부를 하는 포교의 도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해운대불교회관이 위치한 해운대구 중1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개원식 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듣고 불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각문 스님은 이곳이 영축사처럼 시가지에서 벗어난 산사가 아닌 도심 속 포교당이기에 요일별로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월요일 합창반, 화요일 서예·사군자·사경, 수요일 꽃꽂이반, 목요일 교리경전반과 합창, 금요일 다도반 등 날마다 다른 실행활동으로 새로운 즐거움이 있기에 해운대불교회관에는 일주일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게을리하지도 않는다. 매일 새벽 5시 예불을 시작으로 오전 9~11시 참선정진, 이후 사기도 법회 및 기본교리좌 등으로 공부 열기 또한 뜨겁다.



스님은 “꼭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교에 문화를 접목한 실행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문 스님은 현재 비영리 단체인 영축의국인종중지원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울주 영축사 내 본부를 두고, 울산과 부산에 각각 사무소가 있다. 매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체험 답사기행,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스님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남방불교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스님을 뵈고 싶어도 낯설고 두려워 찾아오질

않는다”며 “이들이 불법 안에서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고향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특정 봉사단체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은 3월 중순 개원식을 앞두고, 신도들과 함께 스리랑카 성지순례에 나선다. 각문 스님은 “특히 이번 성지순례에는 10년에 단 하루만 개방한다는 스리랑카 국보1호 불지사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으니 평생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니만큼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지 개교 학교를 방문해 축하인사와 함께 화공품 등을 전달해 보다 의미 있는 순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이들이 불법을 만나게 하기 위해 도심으로 내려온 각문 스님의 애창곡은 판소리 ‘사월가’다. 어려운 법문 중 신도들이 어려울 때면 이 ‘사월가’ 한 소절을 신명나게 불러주며 그 속에 진리를 담아 깨우쳐주는 스님 이야말로 우리 시대 부부나혼자 임에 틀림없다.

박지원 기자

“여성불교중흥 원년 삼아 노력”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부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영숙)은 1월 15일 오전 11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서울본원장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처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및 제2회 자랑스러운 불자상 시상, 법어, 소원충복 점등 및 새해회망 발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했다.

이영숙 부산지원장은 기념사에서 “올해가 부산불교중흥 원년인 만큼 불교여성개발원도 동참해 여성 불교중흥의 원년으로 삼아 수행과 정

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심 깊은 선여인들을 대하니 불교의 앞날이 만장 등처럼 밝다”며 “3년의 짧은 역사지만 오직 신심을 근간으로 했기에 여성 인제가 모이는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듯 앞으로 한국불교를 이끄는 실행 단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의 2009년 사업계획으로 △여성 리더십 교육 및 불교 여성지도자 워크숍, 불교 여성활동



1월 15일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기념법회가 열렸다.

과 사회참여도 증대 △정기월례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성지순례의 활성화 및 법문, 교리, 교양, 문화순례 등 강좌 강화 △여성성일자리 창출, 인격교육, 다문화가족 여성 지원, 여성참여활동 증대 등 총 13개 사업을 발표했다.

박지원 기자

독거노인에게 사랑을...

범어사 나눔 실천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청룡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범어사 사랑의 손길’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지역복지 행사는 범어사가 위치한 청룡동 일대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과 향토애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기초수급자 100세대에 20kg들이 쌀 1포씩 지원해 청룡노포동사무소 60포, 남산동사무소 40포를 각각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서로 돕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100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범어사는 2006년 2월부터 독거노인 아쿠르트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20세대를 선정해, 아쿠르트와 함께 매일 아침 문안 및 인부를 문고, 휴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병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해 지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현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공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원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델, 여관, 병원, 약국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가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될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재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천연백수정 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려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둡고 고통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조용히 지나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

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공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번호: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작성글씨에 해당되는 분은 약삼재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 : 032-12-193445 이상하